

수술 후 암 재발 판정에 있어서 전신 FDG PET의 유용성

서울대학교 병원 핵의학과,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핵의학과*

소영* · 정준기 · 현인영* · 정재민 · 박철은 · 이동수 · 이명철 · 고창순

연자들은 수술 후 암 재발 여부 평가에 있어서 전신 FDG PET의 유용성을 알아보았다. 연구 대상은 수술 시행후의 56명의 암환자들로서, 두경부 암환자 12명, 부인과 암환자 15명, 갑상선암 환자 12명, 위장관 암환자 9명, 그리고 그 외의 암 환자 8명이 포함되었다.

관례적인 컴퓨터 촬영(CT), 자기공명영상촬영(MRI)과 함께 전신 FDG PET을 시행하였다. 전신 FDG PET 촬영은 Siemens-CTI사의 ECAT EXACT 47 scanner를 이용하여 10mCi(370Mbc)의 F-18 FDG 주사후 60분에 하였다. Transmission image 외에 국소 촬영도 시행하였다. PET 소견과 관례적인 검사들(CT, MRI) 소견은 병리학적 검사 소견 또는 임상적인 경과 관찰에 의해 확인되었다.

56명의 환자 중 PET 양성 38명이었다. 이 중 36명은 진양성, 2명은 위양성이었다. PET 음성은 18명이었고, 이중 17명은 진음성, 1명은 위음성이었다. 이를 통해 얻은 PET 검사의 예민도는 97%(36/37), 특이도는 89%(17/19)이었다. 반면에 관례적 검사에서 양성을 보인 환자는 33명이었다. 이 중 26명은 진양성, 7명은 위양성이었다. 관례적 검사에서 음성을 보인 환자는 23명으로 이중 15명은 진음성, 8명은 위음성이었다. 관례적 검사의 예민도와 특이도는 각각 76%(26/34), 68%(15/22)이었다. 관례적 검사에서의 위양성은 주로 위장관암(2예)과 갑상선암(3예)에서 나타났고, 위음성은 주로 부인과암(5예)에서 나타났다.

암표식자 검사(CA-125, thyroglobulin, CEA)를 통한 재발암 판정의 경우 61%(11/18)의 예민도와 79%(15/19)의 특이도를 보였다.

전신 FDG PET는 다양한 암환자들의 재발 여부 판정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.